

CONV/RGENCE

#4

시간 교차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

완벽한 인생

RIOT.FORGE

오브라이언 · 스미스 · 월포드 · 브라이트빌

COREY
LEWIS
★
XXII

필트오버와 자운

구조 측면도

필트오버와 자운, 이 두 도시는 첨단 기술 발전의 중심지입니다.

위쪽에 자리한 필트오버는 모든 것이 정밀한 시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는, 말끔하고 부유한 기술의 천국 같은 곳이죠.

그 아래 위치한 자운은 필트오버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첨단 기술의 어둡고 불쾌한 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무법 천지이기는 하지만 덕분에 누구나 자신의 꿈을 제재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바로 위쪽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이웃 필트오버의 그늘에 눌러 있지만, 자운인들은 확고한 의지와 독창성으로 삶을 버텨냅니다. 지하도시 자운의 짙고 음울한 독성 스모그를 견디며 더 좋은 삶을 찾고, 그런 삶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싸웁니다.

- 제이스의 작업실

필트오버
공요

최상층

중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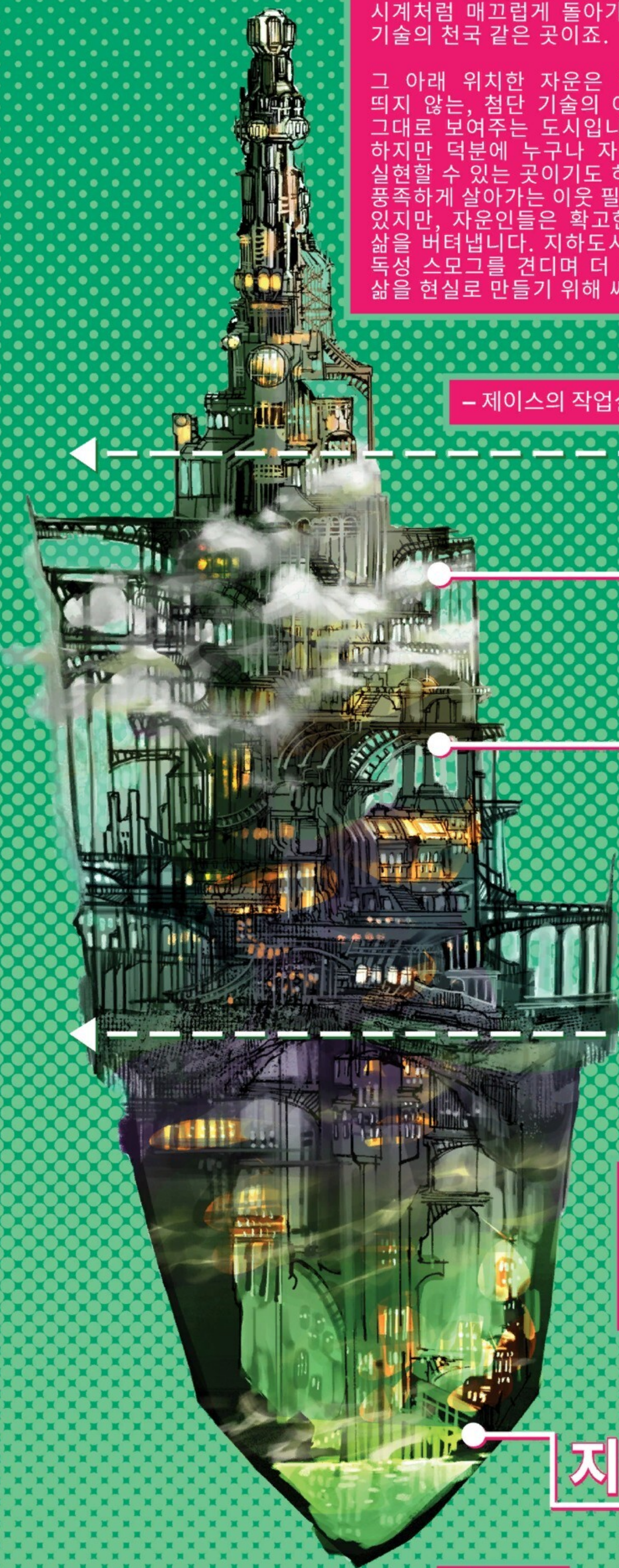
- 승리 축제
- 반 클레그 산업

자운 상층부
음울후 공요

- 에코의 아파트
- 잃어버린 아이들의 은신처
- 빅토르의 오래된 실험실

지하동굴

아트
Eric Canete



에코는 자운의 소년 발명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운**은 첨단 기술에 능숙하면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죠. 에코의 발명품 중 최고는 단연 **Z-드라이브**입니다. 주변의 **시간을 되돌려** 몇 초 전의 일을 되풀이할 수 있죠. 에코는 이 Z-드라이브를 써서 어떤 일이든 자기 마음에 맞게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실수에서 인생이 걸린 문제까지, 그 어떤 것도요.

하지만 시간을 입맛대로 조작하다 보면 자신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결국 에코 주변의 세계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간/교차(**Conv/rgence**)>의 앞선 이야기 격인 이 코믹에서, 에코는 시간을 되돌려 몇 초 후의 미래를 마음대로 바꾸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여행이 주는 새로운 기회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개입하지 않고 시간이 그냥 흐르게 둔다는 것은 에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CONV/RGENCE

시간 교차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

완벽한 인생

존 오브라이언

글

디트리히 O. 스미스

레이아웃

디트리히 O. 스미스 (1-4편)

크리잼 자모라 (5편)

펜슬 작업

디트리히 O. 스미스 (1편)

윌리엄 윌포드 (2, 4편)

크리잼 자모라 (3, 5편)

잉크 작업

카일 브라이트빌

채색

Studio RAM

레터링 (유럽 언어)

Comiccraft 의 타일러 스미스

레터링 (유럽 언어 외)

코리 루이스

표지 아트

사브리나 퍼치

카이트 게리 (1-3편)

에디터

몰리 마한

코믹 내러티브 총괄

메리 검포트

감사한 분들



© 2023 Riot Games, Inc. RIOT FORGE, CONV/RGENCE: A LEAGUE OF LEGENDS STORY and any associated logos are trademarks, service marks, and/or registered trademarks of Riot Games, Inc. Developed by Double Stallion.

반 클레그 공업.
중간층.

프슈욱

그러니까, 이제
와서 증강체를
달지 말라는
말이니?

에코, 가끔은
네가 무슨
생각인지 도통
모르겠구나.

그러시겠조, 아빠. 근데...
친구들 중에 증강체를 단
애들이 어젯밤부터 진짜
괴상하게 행동해요.

그런데? 네
친구들은 원래
괴상하잖니.

그거예요. 개들이
더 이상 괴상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괴상하다는
거예요.

늘 하던 멍청한 일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증강체 때문에...
완벽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 이상하구나.
친구들의 몸이
증강체에 적응하는
중이어서 그럴 거야.

부작용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거란다.

사소한 부작용
같은 건 견딜 수
있다.

글쎄요, 아빠... 아빠가
증강체를 의심하셨던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
증강체라는 걸 내가
직접 살펴봐야겠어...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잠깐
엿보기만 하는 거야.



단단히 잠가 놔는데. 이래서야
몰래 들어가기가...



저 청소 골렘...
좀 허술해 보이지?

슈우욱



저런.

네가 사고친
거야.

슈우욱

뚜둑

어둡한 복도에 출입 제한이라.
제대로 왔나 본데.

자, 내가 **어두운 비밀**을
숨겨야 한다면, 어떤
방에다 넣어뒀을까?

이런 방이지.

으와...



이건 반 클레그
신경 어댑터...



...하지만 그 외에 반
클레그 제품은 없는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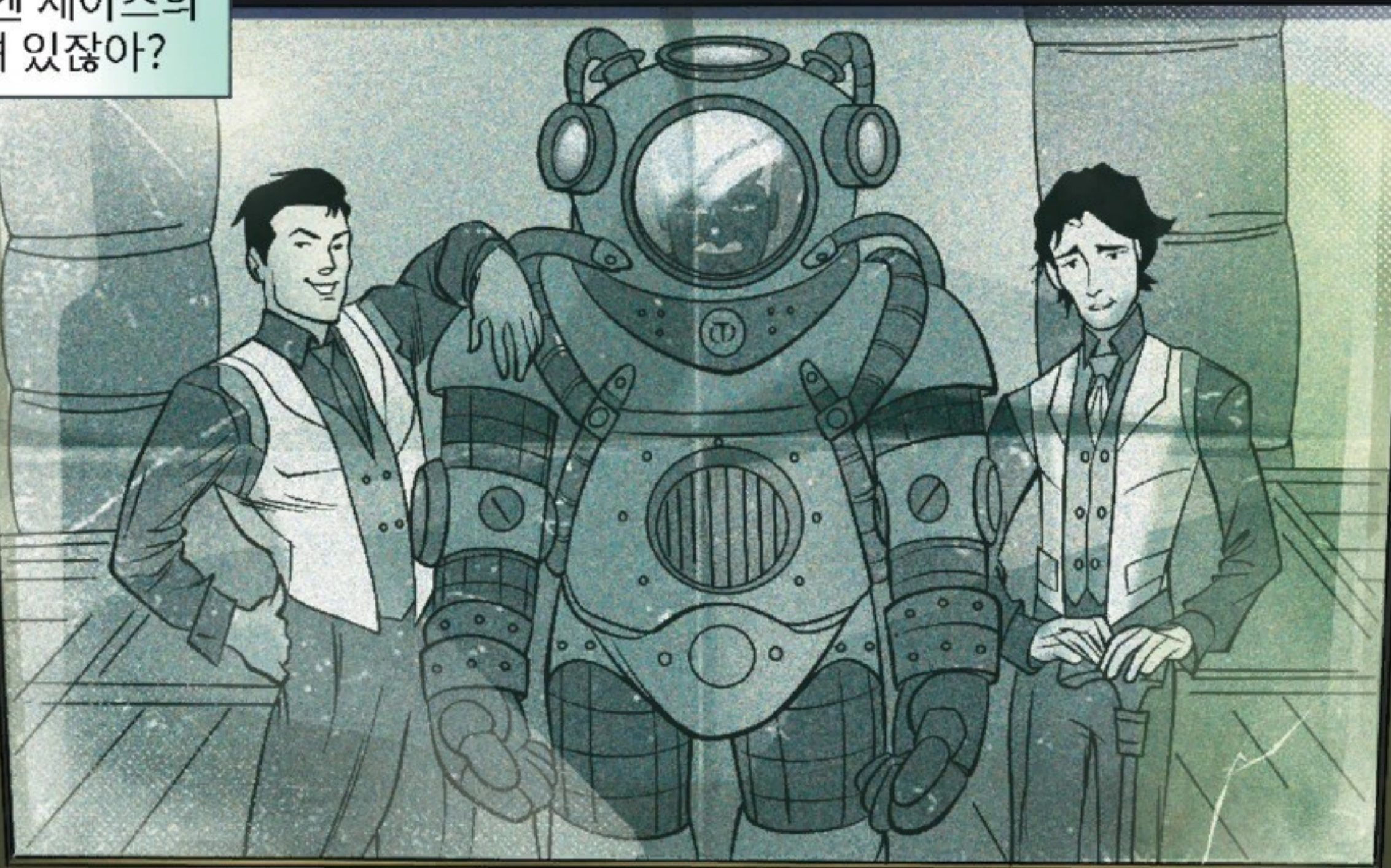
그럼 이건 다
어디 거지?



제이스의 망치잖아?
제이스의 상징이 왜
여기 박혀 있지?



...게다가 벽엔 제이스의
사진이 걸려 있잖아?







미래 기업
필트오버. 자운 위쪽.

저기, 제이스
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아, 예. 약속은
하셨나요?

하암

아뇨, 하지만

진짜 급한
일이예요.

아, 예.

...이 합금으로는
그런 열을 견디지
못해! 말했잖아,
내가--

잠깐만, 누가
왔어.



미안한데, 누구지? 여긴
어떻게 들어왔고?



제이스 님, 얘기할
게 있는데요. 제--

약속을 잡아준다고
했는데도 애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어요!



됐어, 브린.

팬을 위한
시간이야 낼
수 있지.



그래, 애야. 용건이 뭐니?
내 책은 읽어봤니? 자,
사인해서 한 권 주마.

아노, 전 **아빠**
때문에 왔어요.



아빠가 눈이 안
좋아지셔서--

그래, **아버님**이
사인을 원하신다고?
그럼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



퍼억



책 내려놓고
내 말이나 들어요.

이 꼬마가
진짜...



아빠가
이런 걸 뇌에다 꽂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이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고마운 줄을 모르는
꼬마로구나. 내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줬더니
아무 근거도 없이
비난을 퍼부어?

내 제품은 저
아래... 네가 사는
그런 동네에는
팔아본 적도 없어.



우린 당신네 화공
제품 만들어 주다
눈이 멀었던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멍청하니까, 이 따위
쓰레기를 우리한테
떠넘기고 시치미를
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제 보니 유명인을
협박해서 돈 좀 뜯어낼
속셈으로 온 거구나.

그래, 어디
한 번 해보렴.



대체 어떤
기술인지 말하란
말야!

무슨 소리지
알아듣게 하라고,
꼬마!

슈우욱



으음...



그 실험실에
왜 당신 이름과
얼굴이 박혀
있지?



그 이상 가까이
오지 마!

즈웅

과직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괜찮아,
브린. 그냥--



야압!

퍼억



으으...
저건...
빅토르의...



뭐라고?

저 신경 어댑터...
빅토르가 만든 거야.
그자가 만든 건 금방
알아볼 수 있지.
그런데 개조를
한 모양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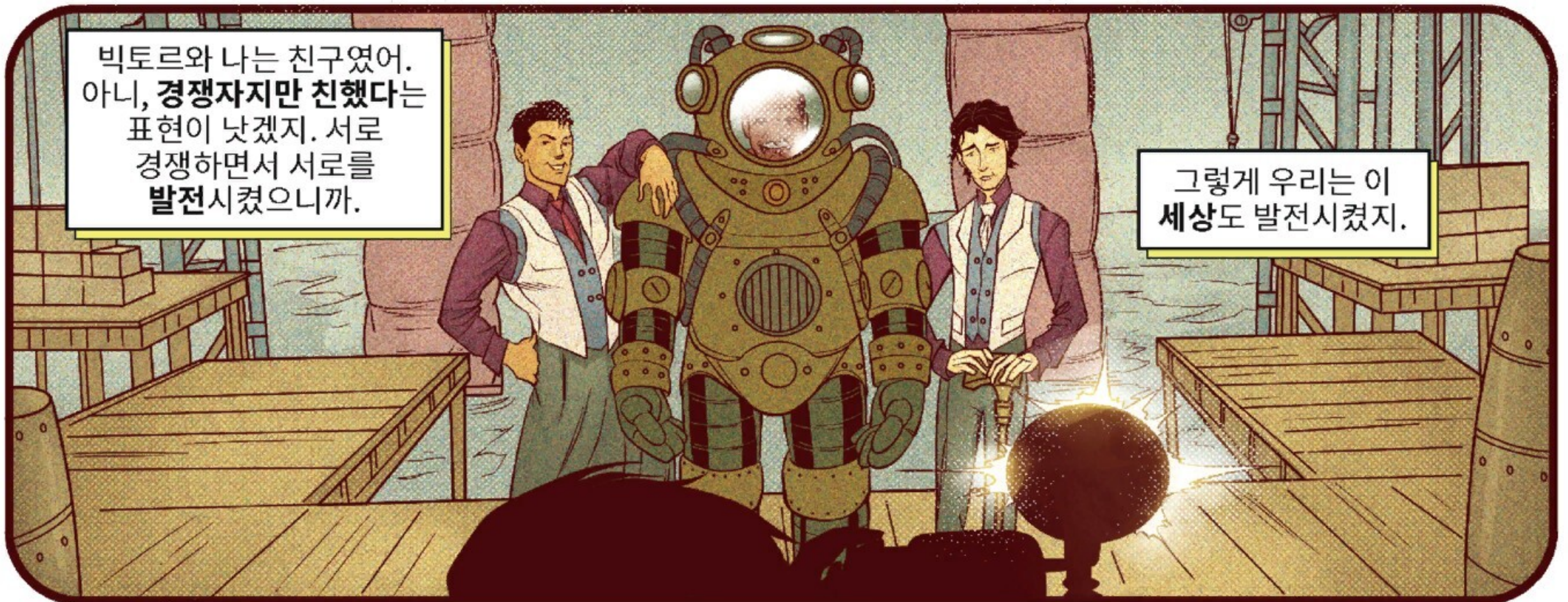
그럴 리가 없어.
빅토르는 당신이
제거했잖아? 빅토르는
죽은 거... 아니었어?

죽었다기보다는...
사라졌다는 게
정확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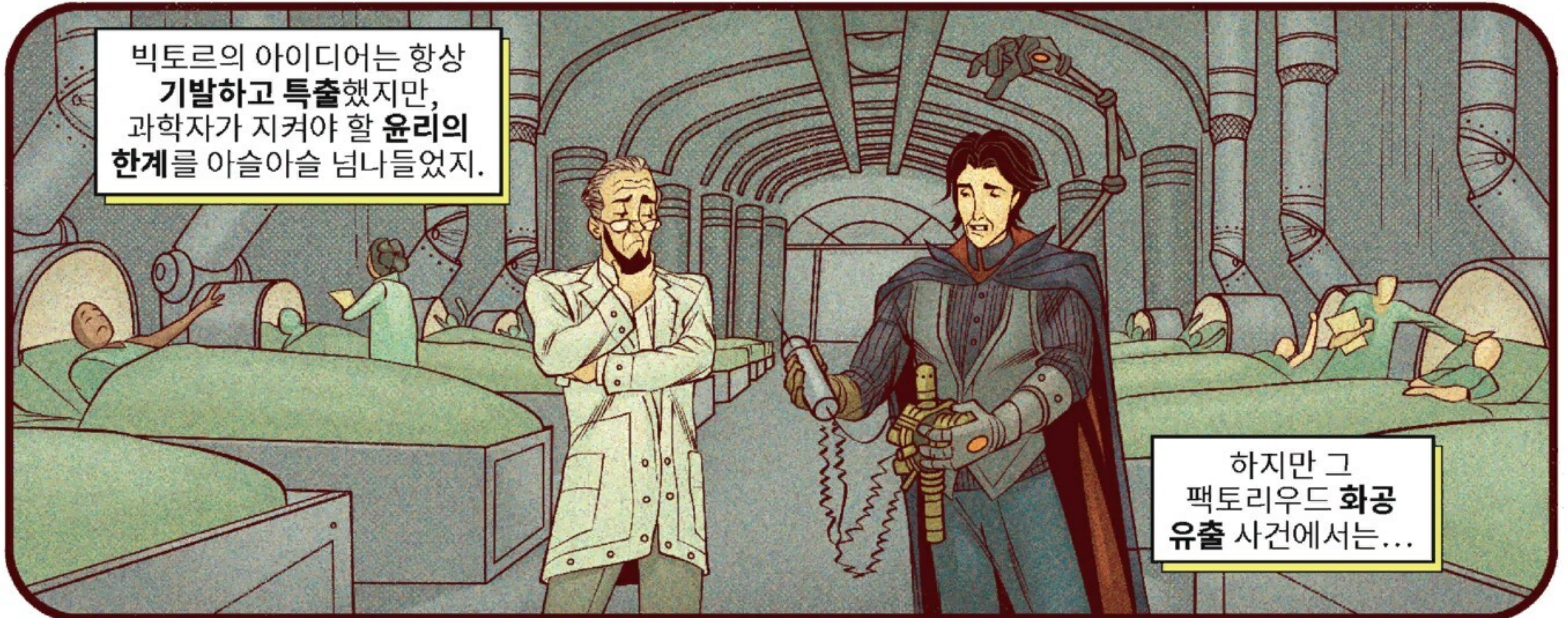
일단 좀
앞으럼.

...안 부서진
의자가 있다면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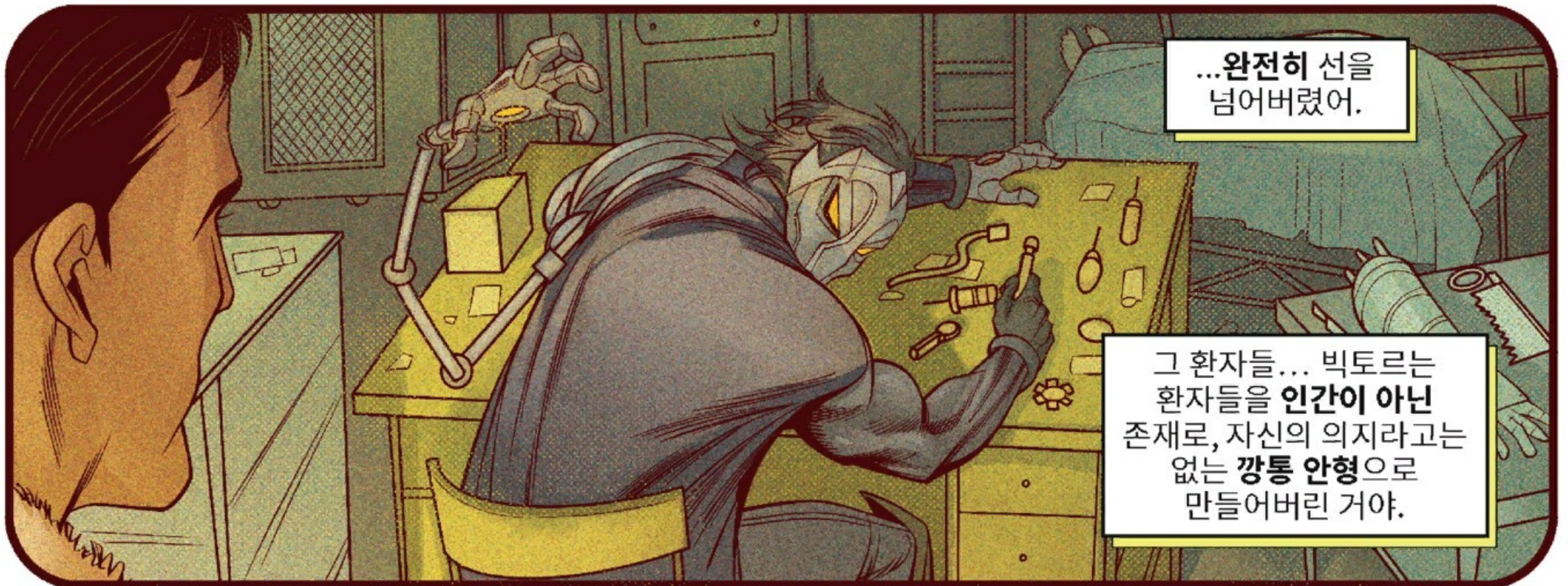
빅토르와 나는 친구였어.
아니, 경쟁자지만 친했다는
표현이 낫겠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발전시켰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도 발전시켰지.



빅토르의 아이디어는 항상
기발하고 특출했지만,
과학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
한계를 아슬아슬 넘나들었지.

하지만 그
팩토리우드 화공
유출 사건에서는...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어.

그 환자들... 빅토르는
환자들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자신의 의지라고는
없는 강통 안형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과앙

난 화가 났어. 빅토르의
연구를 통제할 수 없다면,
막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

놈은 그들을 이용했어.
나를 추적하게 시켰지.

날 죽이려고 말이야

차
와
아
아
아

그래서 난 해야
할 일을 했어...

그 장소를 파괴해 버렸지.
모두가 안에 있는 채로.





미안하지만
난 자운을 위한
일은 안 한다.
더 이상은.



“자운을 위한 일”
은 안 한다...

왜냐하면
자운은 당신이 만든
쓰레기나 숨기는
곳이니까?

빅토르에다...
당신이 사들인 화학공학
공장에다... 그 공장에서
일하다 병에 걸린
사람들까지...



마음대로
생각하렴.

난 “미래의 수호자”다.
무언가를 고치기보다는
새로 만드는 게 어울리지.



그래서 자기가
저질러놓은 짓도
수습하지 않겠나?

당신은 영웅이
아냐. 사기꾼이지.

다른 메달도
다 부숴버리는
게 어때?



말을 함부로
하는 꼬마군.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



브린?

네, 제이스 님?

청소 골렘 좀
보내주겠어?

다시 중간층.



아무도 없어요?

아빠?!



아빠?!

반 클레그?!



에코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니?



아빠 어디
계시지? 아빠를
봐야겠어!









다음 편에 계속...